e-푸른성남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2005년 11월 25일
제 125 호
www.cans21.net

비전성남

발행처 : 성남시 | 편집 : 공보담당관실 | 전화 : 729-2714~5 | FAX : 729-5439 | 우)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태평2동 3309번지)

겨울나기 김장 담그기

맛, 정성, 사랑을 한가득 식탁에







우리 농산물 · 내 손으로 담그는 '건강 김치'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도

어느새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가 식탁에 오르는 겨울 문턱. 어떡하면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최근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고심하던 야탑동 조모(40) 주부는 김장재료를 구하려 모란시장과 인근 농협 등을 찾았다. 젓갈, 고춧가루, 마늘 등을 사고, 또 배추와 무우 등은 주변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 농산물로, 그것도 직접 내 손으로 김장을 담그겠다는 것이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김장. 그래서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는 '웰빙 김치교실'에도 등록했다. 지난 11월 12일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에서 열린 이 교실엔 조모씨 같은 주부들로 가득했다.

좋은 재료 선택에서부터 김치를 보관하는 방법까지, 우리나라 전통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방법을 체험하는 곳. 백김치, 송이 보쌈 등의 배추김치와 갓김치, 알타리, 동치미 등 다양한 김치를 직접 담그며, 흔들리는 '가족건강의 파수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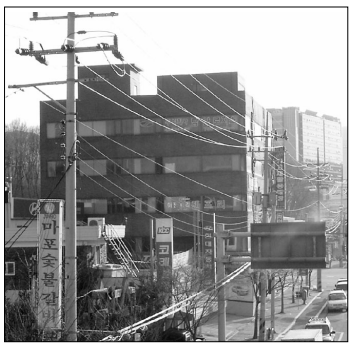
이렇게 정성들여 담근 김장김치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도 한다. 수정구 '사랑의 농장', 농업기술센터 등 시내 곳곳의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우를 나누는가 하면, 농촌지도자 성남시연합회 등 각종 단체들은 그것으로 김장을 담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각 동에서는 김장김치 나누기 · 이웃돕기 바자회가 이어지는 등 시 곳곳에서 먹거리를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가 한창이다.

#11월 흑흑 2005.11.23 1:3 PM 페이지 1

전선주가 지상에서 사라진다‥ 전선 지중화 첫걸음

올해 말까지 모란사거리~단대오거리 2.9㎞ 구간 시공



▲지저분한 전선이 이제 땅에 묻힌다.

쾌적한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갖추기 위한 성남시의 전선 지중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시는 지난 11월 15일 중앙로 가로수공원 분수대(수진2동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지상 전선주의 지중화 사업의 첫걸음인 중앙로(모란사거리~단대오거리) 2.9㎞ 구간의 시공을 기념하는 기공식을 갖고, 올해 말까지 이곳 지상에 설치된 한국전력, 아름방송, 파워콤, 하나로, 두루넷, SK글로벌, 데이콤, 엔터프라이즈 등의 각종 선로를 지중화 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중앙로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 입구 구간(2.5㎞)과 공단로의 선로를 모두 지중화 함은 물론 다른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전력과 손잡고, 모란역에서 단대오거리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76억원과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입구 및 공단로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102억원을 각각 50%씩 부담키로 했다.



▲11월15일 중앙로 구간 기공식 발파장면

시는 단계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도시 공간 구조의 개선으로 '살기 좋은 환경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특수개발팀
729-4542~3

12월말까지 저소득층 긴급지원

생계비 · 의료비 · 교육비… 차상위 계층 적극 발굴

성남시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및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개인 또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에 두 팔을 걷어부쳤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저소득층 응급지원, 위기가정 응급지원, Neighbor Watch(이웃 돌보기) 등을 통해 차상위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응급 지원함으로써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응급지원은 가구원의 사망, 질병, 사고, 실직, 파산, 이혼,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100만원 이내의 생계비와 환자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1회에 한해 각각 지원한다.

▲위기가정 응급지원은 사고,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가구,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건당 100만원 이내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외국인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Neighbor Watch(이웃 돌보기)는 가구원의 사고, 질병, 사업실패, 부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가구,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비는 3개월간 1인 가구의 경우 6만2천원, 4인 가구의 경우는 45만7천원 등으로 차등 지원하며 의료비는 1인당 200만원 이내, 교육비는 1회에 한해 대학생 200만원, 중·고생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 통·반장 등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많은 시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 초부터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 캠페인을 통해 600여명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한 바 있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729-4063

민간화장실 개방‥ 급할 때 편리하게 사용

중앙시장 · 모란시장 · 야탑역 주변 3개 노선 21개소

시민들의 공중위생 편의를 위해 시내 중심가 및 도로변 다중집합장소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 ·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현재 관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수정로 일대의 구인하병원사거리에서 태평역 구간 화장실 7개소와 성남대로의 모란시장 주변 4개소, 야탑역 주변 화장실 10개소 등 3개 노선 21개소이다.

개방화장실에 대해 시는 월 10만원 내에서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제공하게 되며 개방화장실 유인표지판, KS규격화장실 표지판, 다목적화장실 표지판 등을 부착하게 된다. 또 모란시장, 중앙시장, 야탑역 등 3개소 입구에는 개방화장실 시범지역 안내입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9개 노선 34개소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며 편의용품 지원 및 개방화장실 내부안내표지판 정비, 개방화장실 건물입구 안내표지판 제작 등 개방화장실 이용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의 지정, 확대 · 운영뿐 아니라 개방화장실을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로 지속 관리 · 점검함으로써 아름다운 환경도시 'e-푸른성남' 건설에 기여할 방침이다.

자원관리과 공중문화팀 729-4331

도로에도 물청소‥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첨단 청소장비 노면 살수차량 4대 운행



이제 도로 청소 때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청소가 실시된다.

시는 지난 10월 수정구 1대, 중원구 1대, 분당구 2대 등 총 4대의 노면 살수차량을 도입해, 최근 시연회를 개최한 후 간선도로를 청소할 때 운행하고 있다.

첨단 청소 장비인 고압살수 차량은, 차량통행으로 발생되는 대도로변 먼지로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고 청소행정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출 · 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운행되며 살수차에 필요한 용수는 지하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노면살수차 도입으로 도로상의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관리과 자원행정팀 729-4310

혁 신 성 남 !

다양한 시민요구 · 급변하는 지역환경 부응해야

고객 만족 위한 행정혁신 전략 토론회 개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 전략 토론회'가 지난 11월 17일 양인권 부시장, 시의회 김민자 부의장 및 의원, 국 · 소장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지역봉사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강당(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내)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1부에선 경기대 김익식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사례와 교훈' 주제 발표에 이어 박욱성 경원대 교수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대건 박사의 지정토론이 펼쳐졌으며, 2부에서는 건국대학교 강황선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고객만족도 조사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문대 하재룡 교수와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윤두섭 박사가 지정토론을 진행,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행정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대엽 성남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양인권 부시장은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에게 행정 고객인 시민에게 감동과 함께 믿음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와 혁신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봉사자들도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치행정과 혁신분권팀 729-3370

'e-푸른성남 영어마을' 올 12월 개원

내년 1월부터 운영 예정… 교육 · 체험 · 놀이 등 해외연수 환경 두루 갖춰


메인 홀


세계여행체험관


도서관

시가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청소년들의 영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e-푸른성남 영어마을'이 12월 29일 개원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분당구 율동 200번지(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내)에 사업비 55억5,600여만원을 투자, 5,473.27㎡(1,655.66평) 규모로 짓고 있는 영어마을에는 ▲세계축제관 등 29개 체험 및 교육공간 ▲교무실 등 관리시설 ▲야외정원카페 등의 편의시설 ▲학생 250명과 교사 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58실의 숙소공간이 들어선다.

내년 1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e-푸른성남 영어마을'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회당 250명(연간 50주, 1만2,500명)씩 교육청과 협의, 학교별 일정에 의해 입소한다. 1인당 11만원의 비용으로 5박6일간 합숙을 실시하는 동안 원어민 및 한국인 보조교사와 같이 생활하며 세계축제관, 은행, 출입국심사장, 우주관, 세계여행체험관 등 총 29개 공간을 체험하는 등 마치 실제 외국에 나와 있는 듯한 영어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교육과 체험, 놀이 환경(3E)을 두루 갖춘 'e-푸른성남 영어마을' 조성을 통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해외어학연수 비용 등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영어 구사력 증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체육청소년과 영어마을T/F팀 729-3940



출입국심사장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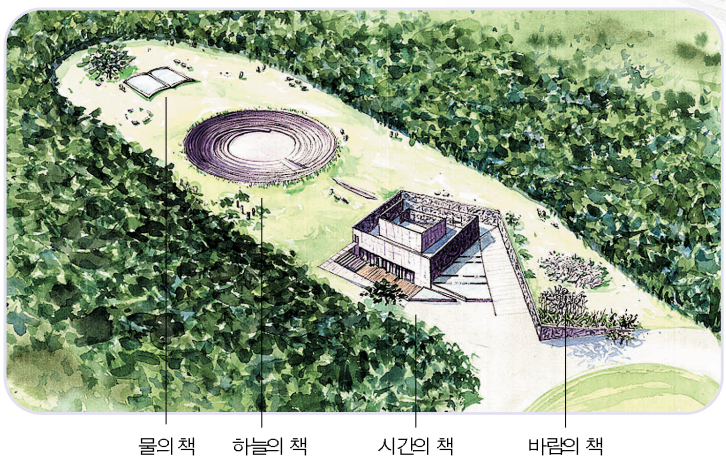


방송스튜디오

책과 함께하는 가족문화공간 율동공원 內

'책 테마파크'

11월 30일(수) 준공식… 12월 7일까지 어린이 도서 전시



국내 최초의 책을 주제로 한 이색 테마 공간 '책 테마파크'가 분당구 율동 412번지 율동공원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시는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율동공원 내 책 테마파크 일원에서 성남시장, 시의회 의장, 경기도지사, 문화계인사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준공식을 갖는다.

이날 특별 이벤트로 책 테마파크 탄생과 관련된 시낭송과 함께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책 모양의 연못인 명상 공간 '물의 책'에 경기도 각지에 있는 물을 모아 채우는 의식이 진행되고, 반구형의 공연장 '하늘의 책'에서는 소리꾼 장사익 공연 등 각종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준공식 연계행사로는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어린이 도서 전시회가 책 카페 공간에서 열린다.

2004년 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임옥상미술연구소가 1년여에 걸쳐 시공한 1,800여 평의 책 테마파크는 ▲이벤트 · 전시 공간을 갖춘 책 카페 '공간의 책' ▲각국 문자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진입로 '바람의 책' ▲책의 역사를 그린 벽화와 미로형상의 산책로 '시간의 책' ▲하늘에 그린 우리별 지도(천상열차분야 지도)가 담긴 반구 모양의 야외공연장 '하늘의 책' ▲책 모양의 연못을 갖춘 명상공간 '물의 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시청각실, 음악과 글의 조각, 시문을 새긴 돌조형벤치 등이 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는 창조적 공간으로 꾸며나갈 책 테마파크는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 1월 중순경 개관할 예정이다.

녹지공원과 공원조성팀 729-2540

수능생을 위한 콘서트

제6회 성남시 청소년 열린음악회

12월 15일(목) 실내체육관…인기가수 12개 팀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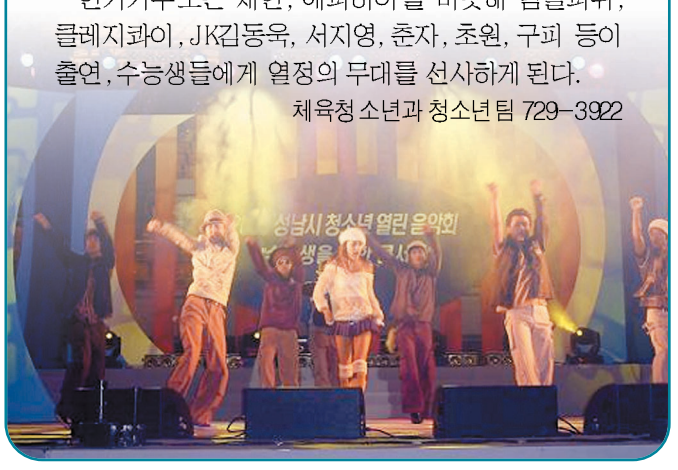
학업과 대입준비에 지친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문화적 감성의 場이 마련된다.

시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남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성남시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수험생과 인솔교사 등 6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행사 1부 '내 끼를 펼쳐라'(10:00~11:00)에서는 최성국 전문MC의 진행으로 학생들의 노래, 댄스, 장기자랑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2부 PBC '한낮의 가요선물'에서는 김수영 MC의 진행으로 인기가수 12개 팀의 특별공연이 공개방송된다.

인기가수로는 채연, 에피하이를 비롯해 럼블피쉬, 클레지콰이, JK김동욱, 서지영, 춘자, 초원, 구피 등이 출연, 수능생들에게 열정의 무대를 선사하게 된다.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729-3922



#11월 흑흑 2005.11.23 1:3 PM 페이지3

『성남 도시발전 방안과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지역공동체 심포지엄』 개최

12월 1일(목) 중원문화정보센터서 해결 방안 모색



▲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열린". 지난 10월 28일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석해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3층)에서 '성남도시발전 방안과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지역 공동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열린"에서 주관하며 성남시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개발전략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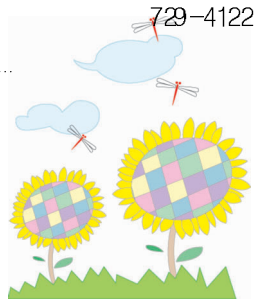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과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성매매집결지역 개발 및 현황 등 전문가 6명의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공동체로서 대내외적인 도시정체성의 이해와 재정립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의견과 내용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 ▲중동 집결지 폐쇄정책에 따른 사회적 문제인식, 극복방안 모색 ▲집결지역의 지역개발 정책 수립 등의 문제를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여성정책과 여성생활팀 729-4122

금광2동 제2어린이집 개관

179평 총 4층 규모… 영아·유아·장애아 반 120여 명 보육



중원구 금광2동 3386번지에 건립된 금광2동 제2어린이집이 지난 11월 11일 문을 열었다.

이번에 개관한 어린이집은 21세기 주역인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건전한 성장 도모에 역점을 두고 총 29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부지면적 179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설됐으며, 8실의 보육실과 유희실, 물리치료실, 조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영아 7개 반, 유아 4개 반, 장애아 4개 반 등으로 반을 편성, 원장 및 교사 15명, 취사부 2명 등 총 18명의 종사자들이 120여 명의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시는 현재 국·공립 34개소, 민간 189개소, 가정 217개소, 직장 9개소 등 총 449개소의 보육시설을 갖춰 1만 3,800여 명의 아동을 보육하게 됐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은행2동과 복정동 시립어린이집도 오는 12월과 내년 3월 각각 완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4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정책과 아동보육팀 729-4141

자금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및 벤처기업(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
· 자금종류: 운전자금, 아파트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분양)자금
· 한도액: 업체당 5억원 이내
· 상환기간 및 대출이율: 3~4년(3.95%~6.76% 변동금리)
· 지원방법: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조성기금의 예금이자로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2%)을 보전
· 협약은행: 농협, 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2005.9.26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업체당 1천만원 이내(1만여 개 업체 수혜)
· 지원조건: 연리 4.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은행: 농협중앙회 각 지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성남시 육성자금 지원 대상업체 및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가동중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인증업체 우선 지원
· 지원한도: 업체별 2억원 이내(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
· 보증기관 및 기간: 경기신용보증재단(1~4년)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729-3812

시정게시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및 이동신고시 관계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소나무재선충 육안식별법: 소나무류 잎이 아래로 처지며 시들거나 고사하였는지 여부, 원목에 탈출공(우화공, 지름 5~7㎜의 원형 구멍)이 있는지 여부확인
- 모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이동시에는 시 녹지공원과의 확인이 있어야 함. 무단이동시 벌금1천만원

녹지공원과 산림팀 729-2520~3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백화점 및 도·소매업소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을 설정,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2~10만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자원활용팀 730-3013

생활(상호) 인터넷 위치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성남시 인터넷 지도를 새롭게 개편, 사업장(병원, 음식점 등) 정보를 무료로 등록해 드립니다. 관내 사업체 중 미등록된 업체는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map.cans21.net
· 링크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 오른쪽 하단(위치정보시스템 길찾기 안내) 클릭
· 지도수정요청: http://map.cans21.net → 상단중앙 <지도수정요청> 클릭
· 상호등록요청: httP://map.cans21.net → 상단중앙 <상호등록요청> 클릭

정보통신과 지리정보팀 729-3442

'내 집 앞 눈치우기' 의무화 추진

시는 자신의 집과 건물 주변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11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의 경우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대지 연접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또 작업은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고, 밤에 눈이 내릴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마쳐야 한다.

200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고지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성남세무서 세원관리2과 730-6397
국세청 www.nts.go.kr/ www.hometax.go.kr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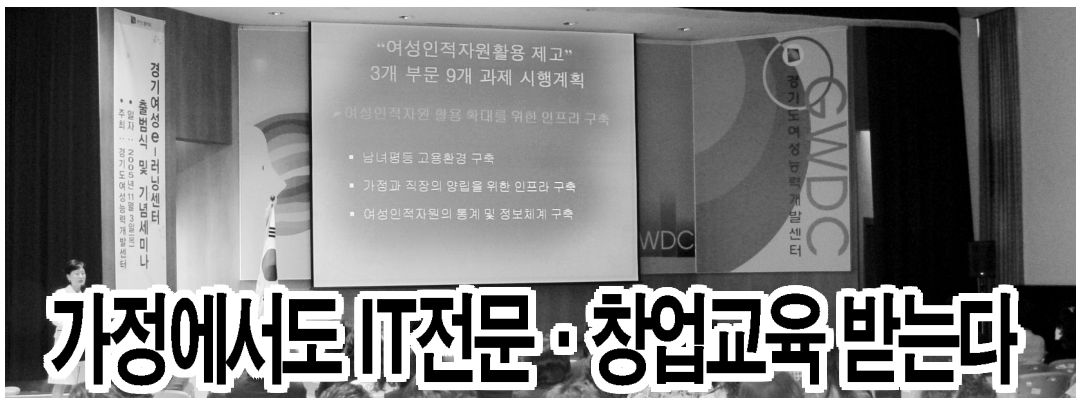
보건복지 통합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29번
· 노인·아동학대, 자살, 긴급복지 지원상담: 365일 24시간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평일 9:00~18:00
홈페이지 http://www.129.go.kr

문화정보센터 정기휴관일 변경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정기휴관일을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열람실: 중앙·중원(첫째·셋째 월요일)
분당분관·수정(둘째·넷째 월요일)
· 자료열람실: 매주 월요일(문헌정보실, 어린이모자열람실, 전자정보실, 연속간행물실, 장애인실)
· 토·일요일은 정상운영, 법정공휴일은 일반열람실만 개방

#11월 흑흑 2005.11.23 1:4 PM 페이지 6



가정에서도 IT전문·창업교육 받는다

'경기여성 e-러닝센터' 출범…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경기도내 31개 시 · 군 여성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가정에서도 쉽게 IT전문교육과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IT전문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온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지난 11월 3일 '경기여성 e-러닝센터'를 출범시키고 12월 초까지 교육생을 모집,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멀티미디어 4개 과정, 웹프로그래밍 2개 과정, DB과정 등 모두 9개 과정 200강의 교육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내년 2월 이후에는 IT기술분야 41개 과정, 경영분야 32개 과정, 여성특화분야 6개 과정 등 총 79개 과정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센터의 출범은 경기도내 여성인력에게 IT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적, 체계적인 국내 최고 수준의 사이버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e-러닝을 이용한 우리나라 여성인력자원개발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직업훈련팀
899-9100/899-9131~6
www.womenpro.or.kr

중소기업 CFO(재무부문 최고 책임자) 전문교육

▶교육대상: 여성창업자 및 예비창업 여성
▶교육일정: 2005.11.29(화)~12.2(금) 10:00~17:00
▶교 육 비: 무료(교재포함)
▶교육인원: 50명(선착순 접수)
▶교육내용: 재무부문, 즉 자금조달과 운용 및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전문적 능력 함양과 실무능력 강화(총 8회 24시간)
▶교육장소: 센터 영상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비즈니스지원팀 899-9142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

기업종합상담실서 무료 기술상담 실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관내 기업들의 기술분야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술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시작된 기술상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부터 기술평가 및 개발, 더 나아가 투자유치, 기술 거래, M&A, 투자유치 등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중소 · 벤처기업의 취약한 기술 경영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단은 기술 분야 이외에도 기업 운영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마케팅 등 수출 자문, 세무 · 회계, 법률 등에 대한 상담을 온 ·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의 온라인상담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남산업진흥재단 782-3032~4, www.snip.or.kr
상담실 위치 : 분당구 정자동 25-1 킨스타워 7층
(분당선 정자역 3번 출구)

함께 찾아요 희망을, 함께 잡(job)아요 일자리~
구직자 및 구인처 무료 일자리 알선

- 구직대상: 성남시 거주자
- 취업분야: 청소, 가사도우미, 경비, 간병, 제조업, 경리, 기타 서비스업
- 취업지역: 성남시 및 근거리 지역
- 무료로 취업 · 창업 및 구인처 상담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성남만남자활후견기관
부설 일자리지원센터 748-9959/9904



대한민국 취업허브,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성남시 고령자 고용 우수사례 – (주)샤니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산업현장의 평균근로연령이 점차 고령추세에 있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희망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고령자 채용기피현상으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 제빵 전문 식품제조업체 (주)샤니(대표이사 이봉수)는 지속적인 고령자 고용확대로 다른 사업장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샤니의 고령자 고용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를 탈피하지 못해 근속기간의 누적으로 인한 임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장기근속자, 특히 고령자가 산업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샤니에서는 2001년 2.08%에 머물던 고령자 고용률이 2003년 3.83%, 금년 9월말 현재 4.58%로 고령자 고용을 해마다 늘려 나가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확대 후 산업재해율도 2001년 0.38% (동종평균 1.29%)에서 2003년 0.13% (동종평균 1.42%)로 해마다 감소하여 무재해에 근접해 가고 있고, 고령자를 주축으로 애사심을 바탕으로 한 노사화합과 협력이 모범이 되어 2003년에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령자 취업률증가계기

회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근로자의 인위적인 감축에 있지 않고,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첫째, 인위적 구조조정을 지양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감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고령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젊은 직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를 중심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노사화합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고령자를 중심으로 '기업사랑'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정년퇴직(만 57세) 후 1년간의 촉탁채용을 규정화했다.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숙련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 제품의 '불량률 제로화'를 꾀해, 노사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노사화합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근로자의 모집 · 채용 또는 해고 시 고령자 차별관행을 개선하고, 직무에 따른 적합성 · 업무능력 등의 기준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고령자에게 취업 문호를 개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문제점인 이직률이 현격히 감소해 라인운영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에서는 고령자의 고용확대에 머물지 않고 여성과 장애인도 상당수 고용하여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반대급부로 근로자들의 기업 사랑과 성실, 숙련된 경험 등이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자료: 성남고용안정센터
758-9191, 6049, 7090
www.seongnam.molab.go.kr

구 분		요 건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매 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 기준률 이상 고용 –지원 기준율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 지원서비스업 17%, 기타 업종 7% ※ 단, 1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	• 지원기준률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 ※매 분기별 근로자의 15%(대규모 기업 10%) 한도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단,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	•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지원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고령자	•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준고령 이상의 자(만 50–64세)를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 구직등록 후 1개월을 초과한 준고령 이상자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제조업에 채용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해 채용된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 채용 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지원, 이후 6개월간 매월 15만원 지원 ※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30만원 지원

▲ 제128회 성남시의회(의장 홍양일)임시회 개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결과



▶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
-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 · 관리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 · 관리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원안가결
- 성남시 지식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수정가결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 성남시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원안가결
-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가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 : 수정가결
-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 원안가결
- 삼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 원안가결
- 삼창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 원안가결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상)는 11월 7일(월)타 지역의 재개발 사례 현장 중 서울 신림1구역 재개발지구를 방문하였다.

신림1구역 재개발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난곡지구를 재개발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기 건설된 아파트에 선 이주시키고 개발하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모범적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3개 단지 43개동 3,322호 규모로 2006년 9월 입주예정이며 민간기업이 기피한 난곡지구 사업을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시행함으로써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영역을 확대 강화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위원들 역시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큰 호응을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의 관건인 이주단지 조성 및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질문 답변 후 현장지역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성남시 재개발정책의 발전적인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 회 기 : 2005. 11. 25(금) ~ 12. 21(수)【27일간】

구분 / 일시	개요		장소
	본회의	상임위원회	
【1일차】 11. 25(금) 11:00	○개회 • 개회식 • 시정연설 ○제1차 본회의 • 제1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상정의 건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장
【2일차】 11. 26(토)	휴 회(토요 휴무일)		
【3일차】 11. 27(일)	휴 회(일요일)		
【4일차】 11. 28(월) 10:00	○제2차 본회의 • 시정질문		본회의장
【5일차】 11. 29(화) 10:00	• 제3차 본회의 • 시정질문		본회의장
【6일차】 11. 30(수)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	각 상임위원회실
【7일차】 12. 1(목)	휴 회	【09:00】 ○의회운영위원회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실
		【10:00】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실
【8일차】 12. 2(금) 10:00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실
【9일차】 12. 3(토)	휴 회(토요 휴무일)		
【10일차】 12. 4(일)	휴 회(일요일)		
【11일차】 12. 5(월)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실
【12일차】 12. 6(화)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실
【13일차】 12. 7(수)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실
【14일차】 12. 8(목)	휴 회	【09:00】 ○의회운영위원회 •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실
		【10:00】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실

구분 / 일시	개요		장소
	본회의	상임위원회	
【15일차】 12. 9(금)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실
【16일차】 12. 10(토)	휴 회(토요 휴무일)		
【17일차】 12. 11(일)	휴 회(일요일)		
【18일차】 12. 12(월)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실
【19일차】 12. 13(화)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실
【20일차】 12. 14(수)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수정예산)	각 상임위원회실
【21일차】 12. 15(목)	휴 회	【09:00】 ○의회운영위원회 •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회사무국 소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실
		【10:00】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각 상임위원회실
【22일차】 12. 16(금)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각 상임위원회실
【23일차】 12. 17(토)	휴 회(토요 휴무일)		
【24일차】 12. 18(일)	휴 회(일요일)		
【25일차】 12. 19(월) 10:00	휴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종합심사 •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의회운영위원회실
【26일차】 12. 20(화) 10:00	휴 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각 상임위원회실
【27일차】 12. 21(수) 10:00	○제4차 본회의 •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 ○폐 회		본회의장

겨울맞이 「제2회 씽씽쌩쌩캠프」

스키 · 보드와 함께하는 작은 영상이야기





추운 겨울, 즐겁고 활기 넘치는 추억을 만들어보자.

스키 · 보드도 배우고 영상미디어에 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제2회 씽씽쌩쌩캠프」가 내년 1월 15일(일)부터 18일(수)까지 3박4일간 강원도 휘닉스파크에서 열린다.

중 ·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캠프는 스키 · 보드강습을 비롯해 자유스키 · 보딩, 협동 및 친교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영상이야기(영상미디어 교육, 촬영, 편집, 영상제) 등으로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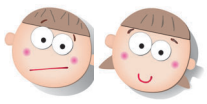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수련관을 직접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20만원이며 11월 21일부터 선착순 40명을 모집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담당
783-4300(내선402) www.tenten21.or.kr

어린이 벼룩시장

중앙공원서 매월 1회씩… 재활용 · 시장경제 배워





▶목 적: 재활용의 중요성과 시장경제 원리, 기부문화 학습
▶참가대상: 5~13세 어린이
▶개 장 일: 매월 1회
• 12월 3일: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운동'
• 내년 2월부터 등교하지 않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현장에서 가상화폐로 교환, 거래

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 ☎706-2721
www.snhope.net/market

생활 속에 담긴 예술세계로 떠나 봐~



2005 성남시 청소년 생활 속 미술체험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생활 속에서 쓰이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일용품이나 장식품을 만들어 보는 '2005 성남시 청소년 생활속 미술체험'을 오는 12월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청소년에서 생활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는 이 행사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미술 전시품 관람, 생태 환경학습, 석고를 이용한 캐스팅, DIY 목공방 등의 다양한 체험으로 꾸며진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각 회에 80명씩 모집한다. 1회(12월 3일)는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2회(12월 11일)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 청소년을 위한 무료단기 강좌

구분	강 좌 명	대 상	요일 및 시간	정 원
12월	한자 배우기	초등2 이상	토 14:00~16:00	15명
	컴퓨터 어린이 기초반	초등2~3	화,목 14:00~14:50	15명
1월	한자 배우기	초등2 이상	토 14:00~16:00	15명
	N · I · E (Newspaper in Education)	초등	화,목 15:00~15:50	15명
	컴퓨터 어린이 기초반	초등1~3	화,목 14:00~14:50	15명
2월	한자 배우기	초등2 이상	토 14:00~16:00	15명
	컴퓨터 어린이 기초반	초등1~3	화,목 14:00~14:50	15명

■ 1일 무료공개 강좌

강 좌 명	대 상	일 자	정 원
케이넥스	유아	11. 26(토) 12:00~12:50	15명
하이파이 셈	초등1~2	11. 28(월) 14:00~14:50	15명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 740-5260~4
홈페이지(www.snyc.net)

상담사례

우리 아이가 갑자기 화를 잘 내요!!

Q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A

감정 조절 능력이란, 즐거운 마음이나 우울한 기분 등 다양한 감정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고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온화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좋은 감정만을 표현하도록 요구받고 살아서 사실 그대로의 감정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분노, 슬픔, 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무조건 달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기를 두려워하며 타인의 감정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스스로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감정을 잘 조절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녀 간에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계를 맺고, 아이 자신이 항상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아이의 감정을 배려해주면 자녀도 남의 감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항상 뜻대로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며, 행동의 한계를 긋고 행동의 결과가 어땠는지,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또 자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가 화를 표현할 때는 해결책이나 부모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선입견과 비판 없이 자녀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여서 듣고, "힘들었겠구나" 등으로 그 감정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해 줌으로써 아이의 감정표현을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니?"로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인식하고 표현하게 하며, "~해서 화가 났구나"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상황과 감정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정선화 성남시청소년상담센터 상담부장
국번 없이 1388

성남의 체감온도는 36.5°

'이웃의 연(緣)' 이어주는 훈훈함 가득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겨울 문턱에 들어선 지금. 성남의 체감온도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곳저곳에서 '이웃의 연(緣)'을 이어주는 훈훈함이 감지된다. 그래도 함께해야 이겨낼 수 있는 세상살이, 사람 냄새나는 현장들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사랑하면서도 함께할 수 없었던 '선녀와 나무꾼'

태평1동 신근선씨 · 필리핀인 아내 아멜리아씨



▲ 유방암으로 입원 중인 아내가 마냥 걱정스러운 신근선씨와 둘째 아들 승극이, 어머니

이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자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유방암 판정을 받고도 국내 의료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필리핀인 아내 아멜리아씨.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그저 아내를 그리워해야만 했던 남편 신근선씨.

병 치료를 위해 필리핀으로 떠난 엄마가 보고파 집 근처 성남 비행장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만 보고도 엄마를 찾고 보채던 어린 두 아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처럼 사랑하면서도 함께할 수 없었던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인 신근선씨 가족은 우리의 이웃이었다.

신근선(43 · 태평1동 5456번지)씨와 필리핀인 부탄주엘라 아멜리아(33)씨는 1999년에 결혼해 승현(6세)과 승극(2세) 두 아들을 낳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유방암이 발병했어도 아무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채 차일피일 병을 키우다가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필리핀으로 떠나야만 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제결혼한 뒤 2~3년 정도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신씨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의 아내 아멜리아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주 필리핀과 한국을 오갔고 때문에 신씨 아내의 한국국적 취득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신씨 가족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두고 필리핀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슬픈 엄마 아멜리아씨는 우리 이웃의 작은 정성으로 한국을 떠난 지 4개월만인 지난 11월 9일 치료를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신근선씨는 "아픈 몸이지만 이제는 아내의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가족 모두를 다시 한 자리에 만나게 해 준 주위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전했다. 그의 아내 아멜리아씨도 "빨리 희복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싶다"는 엄마로서의 소중한 꿈을 밝혔다.

그러나 아멜리아씨가 앞으로 항암치료와 절제술, 조직검사 등 치료받는 과정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의료비가 적지 않은 만큼 이들 가족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태평1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신근선씨는 현재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월 60만원의 생계보조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서 "이 가족을 돕기 위해 우선 저소득 가구 응급지원사업 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했고, 일일찻집을 열어 수익금을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가족이 희망을 접지 않고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웃의 따뜻한 마음과 각계각층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래서 최근 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날개 달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선녀와 나무꾼처럼 살고 싶었다'는 신근선씨 부부.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지금 이 부부의 소박한 꿈에 희망이 되고 있다. 이들 부부의 다짐이, 꿈이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다시 묻혀지지 않도록 힘과 용기가 되어주자.

※도움을 주실 분: 조흥은행 신근선 (계좌 712-04-378065)

태평1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737-2764
정경숙기자 chung0901@hanmail.net

어려운 가정의 제자들에 급식비 지원

문원중학교 교사장학회의 제자 사랑



▲ 장학회 총무 전윤경 교사 (앞줄 우측)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노재상 학생회장(좌측)과 학생들



▲ 서현표 교장선생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설움을 겪는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설움이 가장 크다. 그것도 한창 자라날 청소년기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픔이 나이라면 그 설움 또한더하지 않을까.

그런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어 주는 문원중학교 교사 장학회.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문원중학교의 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장학회다. 흔히 장학회라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장학회는 오로지 점심을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아이들에게 매달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과목을 맡고 있는, 장학회 총무 전윤경 교사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몸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더 우선 아니겠어요?" 하며 웃는다.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급식을 하지만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실제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점심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고, 뜻이 있는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만들어졌다.

현재 3명의 교사가 매달 급식비를 내서 16명의 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도 전혀 모르게 진행되는 일명 비밀 프로젝트. 그저 일시적인 국가보조금으로 급식을 받는 줄로만 알고 있지, 학교 차원에서 도와주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아이들도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을 느껴서일까, 얼마 전 학교 축제 때 학생회에서 100원짜리 티켓을 발행하여 모은 성금 65만여 원을 장학회에 기부한 것이다. "이런 장학회를 만드신 학교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학업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이 학교 학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계의 앞날은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을까.

박혜정 기자 misop215@naver.com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 주관

산성동 '이웃 사랑 함께 나누기 바자회'



▲ 바자회 현장

입동이 지나서 일까, 완연한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옴을 느낀다. 며칠만 있으면 달랑 한 장 남게 되어 벽에 걸려 있을 달력만 생각해도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진다. 한 장 남은 달력만 보고도 가슴이 시려오는 이 계절을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따뜻하게 보낼 준비를 하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단걸음에 찾아가 보았다.

바로 이웃사랑 함께 나누기 바자회. 수정구에서 맨 끝에 위치한 산성동이 그곳인데, 지난 11월 9일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는 물론 각종 생활용품과 화초들을 후원받아 판매하는 일일 바자회를 열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팔을 걷어 부치고 설거지를 하는 부녀회원의 모습에서, 무거운 국수 쟁반을 들고도 싱글벙글 웃으며 다니는 회원의 모습에서 그들이 나르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닌 사랑임을 느낄 수 있었다.

산성동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직접 텃밭을 일구어 그곳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 일일 바자회는 올 겨울 산성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장을 해주기 위함이란다. 텃밭에서는 이미 2천여 포기의 배추가 사랑과 정성을 먹으며 자라고 있고 이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김장 재료와 쌀을 구입해 나눠줄 계획이다. 저소득층이나 영세가정에 지원해 주는 셈인 것이다.

올 겨울, 이들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김장김치를 먹으며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어둑해지는 시간까지 밝은 얼굴로 봉사하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 회원분들께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 드렸다.

박혜정 기자 misop215@naver.com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체

성남시 비둘기봉사단



▲성남시 비둘기봉사단 회원들. 왼쪽부터 중원구 부회장 이희자씨, 회장 전영란씨, 분당구 부회장 조성옥씨, 수정구 부회장 김병순씨, 성남시 호스피스센터 팀장 김윤숙씨

암환자의 편안한 임종 · 사별가족 도와

긴 삶의 여정에서 마지막을 선고받은 이들이 겪어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두려움, 또 그 가족들이 환자와 함께 겪어야 하는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성남시 비둘기봉사단(회장 전영란). 지난 2002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남시 3개구 보건소와 한양대학교가 협력하여 만든 '성남시 호스피스 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받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80여명이 센터에 등록된 암환자와 가족을 돌보고 있다.

'호스피스'란 신체간호, 심리간호, 가사일 보조 등을 통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아 새로운 세계로의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가족간의 대화단절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도 차마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우리 호스피스를 통해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게 될 때 보람을 느끼고, 또 환자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애타게 우리를 찾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비둘기봉사단의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사별 후 가족들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빨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별 후에도 1년여 등안 편지, 상담, 방문을 통해 돌봐 주고 있으며,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어려운 환자와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밖에도 비둘기봉사단은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으로 어려운 환자 및 저소득층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사랑 실천' 예산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비둘기봉사단의 전영란 회장은 "호스피스 사업이 침체되지 않고 더욱 더 활성화되어 호스피스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호스피스를 원하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둔 가정에서는 신청 바랍니다.

성남시 호스피스 센터 729-5379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5371/79
수정구 729-5171, 중원구 729-5273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작품 이미지 설명 참조>

연말기획 특별 초대전

"아름다운 만남" 展

· 기 간 : 2005. 12. 3(토) ~ 12. 31(토)
· 장 소 : 갤러리 율 전관(분당구 율동공원 인근)
· 참여작가 : 서양화, 동양화, 조각 등 독창적인 작품 세계의 중견 작가 30여명

갤러리 율 709-6868 www.yul-sagunaz.com

※12. 15(목)부터 16일간 2층 특별전시장에서 '독거노인 후원을 위한 따뜻한 미술 축제'가 열립니다.

#11월 흑흑 2005.11.23 1:4 PM 페이지7

정신건강과 웰빙 ⑦ /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 **권의정**

노년기 정신 건강의 적(敵), 우울증!



겨울이 성큼 다가와 날씨가 자못 춥다. 추위가 다가오면 누구보다 걱정되는 사람이 바로 노인이다. 노화는 인간에게 있어 거쳐야 할 자연스런 과정이지만,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 몇 차례 노년기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숨어있는 노인 우울증

최근 언론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이 OCED 국가 중 최고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자살의 근간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다.

사실 노년기 우울증은 매우 흔하다. 전체 노인 중 이런 우울증상을 가진 사람은 10~20%에 이른다. 이렇게 우울 증상이 많은 이유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독특한 특징들 때문이다.

첫째, 노인은 각종 신체 질환에 시달린다. 이로 인한 고통이 우울증을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심적 부담을 가져온다. 셋째, 직업을 갖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는 것도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뇌졸중 등 뇌의 노화가 우울증을 야기한다.

그런데 노인의 우울증은 중·장년기 성인과는 달리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노인들은 워낙 표현을 안 해 우울증을 잘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울증일 수 있다.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량이 감소한다든가, 한숨이 늘고 괜히 울먹거리는 것이 늘어나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

또 치매가 되기 직전이나 치매 이후에도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 자칫 '연세가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방심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다. 우울증은 방치하지 않고 치료시 완치율이 높으며, 더욱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울증에 대한 해법 몇 가지이다.

● 우울증 치료 해법

첫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내과적 질환과 그로 인한 고통일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테면 통증관리는 매우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는 암 자체 치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통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핵가족보다는 대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개인 취미활동이나 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직업을 갖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국가가 나서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 등 노인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직업을 통하여 노인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체적 활기를 높여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를 근간으로 한 자원봉사는 노인 자신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높여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적절한 영양 관리와 운동이 필요하다. 노년기의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하며 정기적인 운동과 영양섭취로 신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노인의 신체적 상태는 중·장년기 성인과 매우 달라서 영양 상태에 따라 생리적 변화가 심할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거의 확실시 된다면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급기야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반면에 우울증은 치료만 잘 받는다면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은 병이다. 따라서 가까운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다면 우울증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 정신 보건센터 754-3220



건강교실

■본인부담금 없는 건강검진

- 기간 : 2005.11월 ~ 12.30(월~금 8:00~10:30)
- 대상 : 성남시 민 中 1935~1965년생 (40세~70세)
- 장소 : 성남중앙병원 2층 208호 지역사회 건강관리센터
- 내용 : 식이 및 영양평가, 성인병 검진 및 추가 혈액검사, 체지방 측정 검사, 대사증후군 판정, 개인별 맞춤식 건강상담, 건강소식지 우송, 지역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회원증 발급 및 정기검진 시 사전 연락
- 신청 방법 : 전화 예약 후 검진가능

지역사회 건강관리센터 733-5545

■한방 건강교실



- 기간: 2005.12.8 ~12.22 (매주 목요일 10:00~11:30)
- 장소: 분당구보건소 강의실
- 대상: 30세 이상 관내 주민
- 강사: 민상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 내용: 체성분 분석 검사, 한방 양생법 교육, 기공체조
- 신청 기간: 2005.12.1(목)부터 선착순 20명
- 신청 방법: 직접방문 및 전화

분당구보건소 한방진료실 729-5357

■조류독감 Q&A

- 인체 감염 가능성은? 배설물 안 만지면 확률 희박
- 감염 조류 먹는다면? 끓는 물에 익혀 먹으면 안전
- 예방법이 있다면? 평소 자주 손 씻기. 독감 예방접종
- 타미플루로 예방과 치료? 부작용 위험, 단지 치료제일 뿐



▶의료급여수급자中 암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1종, 2종)로 인정된 자 중 암환자
  - 2005.1.1 현재 의료급여수급자인 자
  - 2005.1.1 이후 의료급여수급자로 된 자
- 대상 암종: 모든 암종
- 지원한도액: 1·2종 수급권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중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 2종 수급권자: 급여 항목의 진료비(법정본인부담금)중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 적용기간: 2005.1.1 이후 발생한 해당 치료비(※ 치료비 지원 신청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2005.1.1부터 사망 시점까지 지원 가능)

수정구보건소 729-5182
중원구보건소 729-5282
분당구보건소 729-538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 기간: 연중
- 지원 대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녀

※ 선천성이상아: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탈장, 제대 기저부탈장, 그외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지원 절차: 의료기관 또는 부모 등이 신고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중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신청 -> 신고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담당자 현지 실태조사 또는 주변에서 생활상태 확인
- 지원 금액
  - 선천성 이상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 지급액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와 동일. 단 1인당 출생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499㎎(200만원), 1,999㎎(400만원), 1,500㎎(700만원)

▶3째 자녀 출산비 보조금 지급

- 대 상: 2005년 1월 1일 이후 3째 자녀 출생
- 보조금: 1회 10만원

보건소 지역보건팀 729-5172
729-5272/76, 729-5372

▶중증환자 등록시 본인부담률 인하

- 시행일: 2005.9.1부터
- 대 상: 암, 심장병, 뇌질환 등 3대 질환(2008년 9~10개 질환으로 확대예정)
  - 암은 신청한 날로부터 입원, 외래 포함하여 5년
  - 심장, 뇌질환은 입원하여 수술(개심·개두술)한 경우 최대 30일
- 혜 택: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총진료비의 20%에서 10%로 인하

※ 2006년 1월부터는 초음파, 식대 등을, 2007년에는 상급병실차액도 급여확대할 예정

- 중증환자 등록: 암으로 확진 후 요양기관에 비치된 『중증환자등록 신청서』에 담당의사소견을 받아 공단 지사에 방문신청(7일 이내)→ 중증환자등록확인증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
www.nhic.or.kr
성남북부지사 729-0114
성남남부지사 788-4114

성남시립국악단



님네노소가 즐기는 우리 가락의 향기

菅·絃·唱·打!…2% 부족한 문화갈증 채운다





▲ 한상일 상임지휘자

그동안 극장 외에는 좀처럼 문화예술의 볼거리를 찾기 힘들었던 성남. 그 2% 부족한 문화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곳, 성남아트센터가 생겼다. 그리고 우리 음악으로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성남시립국악단이 지난 9월 탄생했다.

12월 8일 저녁 7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창단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성남시립국악단을 찾아갔다. 연습실 문을 밀고 들어 선 순간, 한상일 교수의 지휘 아래 46명의 젊은 단원들이 정열적으로 연습에 몰입하고 있다. 돌아서 나오려는 순간 들려오는 애절한 '아리랑' 가락. 겨레의 숨결로 꽉 메울 공연장을 미리 느껴보는 순간이었다.

시립국악단은 피리, 대금, 소금, 해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의 관현악을 비롯해 장구, 꽹과리 등의 타악, 민요와 판소리의 성악 파트 등으로 골고루 구성돼 있다.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정주'(일명 임금님 밥그릇)라는 특이한 악기도 있는데 소리가 맑고 여운이 길고 깊은 게 특징이다.

감독 겸 상임지휘자인 한상일(동국대 교수 · 50세)씨는 "국악단으로 출발하지만 가무악(歌舞樂) 중심으로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정서로 다가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100만 시민에게 우리 가락의 향(香)을 가까이서 느끼게 해 주고 싶다"는 결연한 포부를 밝혔다.

구시가지 시민을 위해서는 시청에 소재한 성남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우리시 공원 네 곳에서는 가족음악회 성격의 야외행사를 하며, 장애인, 장년, 노년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도 계획하고있다. 이제 연 12회 정도 국악단의 정기공연을 만날 수 있게 된다.

12월 8일 첫 공연 후 신년음악회는 2006년 1월 20일에 연다.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국악연주를 듣고 수많은 감동을 한 보따리씩 얻어 갈 수 있다. 국악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菅, 絃, 唱, 打! 국악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서운하지 않게 모두 챙겨서 감상할 수 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 가을이 간다. 겨울의 문턱에 선 이제 어디서 겨울을 맞을까? 성남시립국악단의 우리 가락에 푹 젖어 그 심사를 달래 보는 것은 어떨까.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 협연자 방영기 성남예총 회장(중앙)의 '집터 다지는 소리' 공연

12월 8일(목) 창단연주회 '성남의 香'

▶ 일 시 : 2005.12.8(목)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입 장 료 : 무료 (선착순입장)
▶ 공연문의 : 729-5646

<1부>

· 대풍류(관악합주)
· 현악합주 "향토" – 작곡: 김영재(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 판소리 視唱 – 소리: 안숙선(국립창극단 단장, 주요 무형문화재 23호)
· 타악 퍼포먼스 "상생의 두드림" – 타악: 임원식, 강민석, 곽재혁, 심재량, 이종화

<2부>

· 성남서곡(관현악곡 "태동") ——— 작곡: 이화동
· 관현악곡 "아리랑" ——— 작곡: 최성환, 편곡: 박위철
· 관현악과 풀피리 "강원도 아리랑" ——— 풀피리 : 오세철(무형문화재 29호)
· 관현악과 민요 ——— 편곡: 조원행, 노래: 김은희
"바다의 노래", "장백산 아리랑"
· 성남의 소리(집터 다지는 소리 등) ——— 작곡: 김회경, 노래: 방영기
합창: 성남시립합창단
·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합주곡 "신모듬" — 작곡: 박범훈(중앙대 총장)
협연: 김덕수 사물놀이

주민자치센터 탐방/ 하대원동







기타 교실 '인기 짱'

동아리반, 매년 작은 음악회 열어

놀이방도 갖춰… 아이 있는 주부들 이용 늘어
최근 자체 소식지 발간… 동 소식 교류의 場으로

기타 동아리반▶



▲ 앞줄 좌측 세번째가 임경선 동장, 뒷줄 우측 두번째가 정순리 반장

주민 2만3,050명이 사는 하대원동. 2001년 1월 문을 연 이곳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요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노래교실, 풍물놀이, 퀼트반에서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구연, 독서지도, 종이공예, 만화그리기 등에 이르기까지 30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배움의 교실로는 한자교실, 서예교실, 중국어교실, 일본어교실, 컴퓨터교실이 있으며,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도 있다.

그동안 아이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했던 주부들은 다 오라! 다른 동에서 보기 드문 유아방이 있어 엄마는 여가선용, 아이는 놀이로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은 초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 1~5회 약 500명이 수강하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특히 동아리반까지 구성된 기타교실은 단연 '인기 짱'이다. 배운 지 3년 이상 된 30~50대 주부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2003년 11월 중원구 자치센터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획득했고, 매년 한 번씩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중원구 행사 등 여러 곳에서 초청해주셔서 공연도 많이 다니며 보람을 느낀다"며 정순리 반장은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3월 이곳에 부임해 온 임경선 동장은 "개강 때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접수할 정도"라며 어느 곳보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어 놀랐다고 한다. 인기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동에서 오신 분들은 받지 못할 때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잇는다.

지난 10월에는 김방우 주민자치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청주시의 우수자치센터를 견학했고, 11월엔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활동사항을 실은 하대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5천부를 처음으로 발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움직임은 자원봉사로도 이어져 수강생들은 안나의집 등 복지시설에서 '사랑의 일손'을 보태고 있다고 정영인 총무는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삶의 생생함이 배어 있는 곳. 다시 오고 싶어지는 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

하대원 주민자치센터 758-0836
박문숙 기자
moons4326@hanmail.net

#11월 흑흑 2005.11.23 1:3 PM 페이지 5

정보 클리핑

2005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암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무제한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지난해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이 전액 공제된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담보로 15년(2003년까지 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2003년까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고, 구주택을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제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연도까지는 공제된다.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까지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5.11.1~1997.12.31사이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의 30%가 세액공제된다.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의료비 · 신용카드 올해까진 이중공제 허용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이중공제가 올해까지는 허용된다.

의료비 영수증의 결제방식별 내역표시가 올 11월부터 시행돼 이전 것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 기존 제도를 연장한 것이다.

2005년 달라진 세법 챙기기

- **카드공제 대체로 줄어**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체로 줄어든다. 총 급여의 10% 초과금액의 20% 공제에서 15% 초과금액의 20% 공제로 한도 축소되며, 중고차 구입, 골프회원권 구입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 **세율 인하, 허위영수증은 NO!** : 소득세율이 1% 인하되었으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가 100만원(지난해 60만원)으로 인상된다.

- **인터넷으로 증빙 챙겨** :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를 위하여 인터넷 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연말정산 증빙서류가 간편화됐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관련 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이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 가능

2000~2004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 코너에서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소비자 Info

택배 손해, 실거래 가격 보상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가격 · 종류 · 수량 꼭 기재해야

지금 우리는 속도와 정확성이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과 맞물려 최근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택배서비스 또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 발생빈도가 높아져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중동의 한 소비자는 얼마 전 강원도로 자전거 하이킹을 갔었다. 하이킹 도중 자전거를 택배로 부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택배회사에서 자전거를 분실했다고 한다. 또 다른 소비자 역시 시골에서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으신 쌀을 택배로 보냈는데 분실되었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해왔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의뢰한 물품을 택배사가 분실한 경우, 소비자는 물품 도착예정일, 도착예정 장소에서 거래되는 운송물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반드시 택배를 의뢰할 때 운송장에 물품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만일 운송장에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회사에서 정한 손해배상한도액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다만, 택배회사는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운송장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택배 이용 시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물품가격을 반드시 기재하여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손해액을 배상받도록 해야 한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2005 12월 무료 컴퓨터교육 안내

기 관 명	구 분	접 수 기 간	교 육 기 간	전화번호
시 청 (교육장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내 청소년SW 기술 교육장 2층)	실버 기초반 (윈도우, 한글워드), 일반 기초반 (인터넷활용과태그)	11. 28~29 선착순 전화접수	12. 1~12. 30	729-3415 (3412~4)
중원구청	컴퓨터 활용반	11. 28~ 전화접수	12. 12~12. 23	750-2307
	한글반		12. 12~12. 23	
수정문화정보센터	드림위버	11. 29~12. 1 선착순 접수	12. 5~12. 27	743-9600
	플래시			
	컴퓨터 및 인터넷기초			
중원문화정보센터	엑셀과 파워포인트	11. 26~11. 29 선착순 접수 (전화접수 불가)	12. 6~12. 27	정보봉사팀 752-3916~7
	홈페이지 디자인		12. 6~12. 27	
	인터넷활용		12. 6~12. 27	
	직장인을 위한MS워드 2003		12. 6~12. 24	
중앙문화정보센터 중앙도서관	엑셀 및 파워포인트, 윈도우, 인터넷, 한글기초	11. 29 09:00 (온라인 접수)	12. 6~12. 23	709-9154 (내선333)
사)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PC활용기초반, 엑셀자격증반, 워드자격증반, ITQ자격증반, 인터넷반, 홈페이지반, 워드반	수시모집	3개월	732-6884 FAX:748-6765
	웹 디자인 전문가 교육반		4개월	

#11월 흑흑 2005.11.23 1:3 PM 페이지4

성남 문화원은 내 친구

결혼하기 전까지 30년을 살던 곳 대전에서 결혼과 동시에 이곳 성남으로 와 신혼살림을 차렸다. 성남은 신랑을 빼놓고는 주위에 아는 사람도, 아는 곳도 없는 정말 낯설은 곳이었다. 지난 1년 동안은 서울로 공부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집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었지만 아이를 낳고 집에 있게 되면서부터 나는 집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집 근처에 성남문화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한번 들어가 보았다. 마침 그곳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배우고는 싶었지만 6개월 된 아이 때문에 배운다는 것이 실상 쉬운 일은 아니었던 참이었지만 나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생활요가를 신청했다.

제발 강사 선생님을 비롯한 수강생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싫어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첫날 수업을 하러갔는데, 내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요가 선생님도 "아이가 있다고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하며 격려해주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 선생님과 요가 수강생들도 아이를 예뻐해 주셔서 요즘에는 아주 마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요가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넉 달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앉지 못했던 우리 아이가 이제는 기고 서려고까지 한다. 내친김에 이번 학기에는 소설작법까지 신청을 했다. 요가와는 달리 소설작법은 아이가 옹알이를 하거나 찡찡대면 다른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업고 출입문 근처에서 고개를 내밀고 강의를 듣고 있지만 소설작법 선생님도 열심히 해보라고 이해해 주셔서 요즘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하루하루 배움에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 가끔 비디오가 보고 싶으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문화원으로 가서 비디오를 보고 오곤 한다.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문화원은 내 곁에서 배우고자 하는 지식 욕구를 채워주고 문화생활까지 즐기게 해 줄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수정구 수진1동 한은홍

옷 한벌의 행복

결혼 16년차. 은행동 끝 800만원짜리 전세방으로 시작한 신혼살림이 지금은 25평 아파트다. 앞으로 몇 년은 갚아야 할 은행융자를 얻어 사기는 했지만 어엿한 내 가게를 갖기까지 우리 부부,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다.

성남에서 5년 동안 슈퍼마켓을 하다 이곳 분당으로 온 지 1년 6개월째. 이젠 몸도 마음도 많이 여유로워졌다. 아침, 저녁으로 까치도 만나고 밤에는 하늘을 쳐다보며 별도 세어 본다. 며칠 전에는 딸과 함께 북두칠성을 발견하고는 흥분의 환호성도 질러보았다.

40대 중반으로 접어 든 올해에는 유난히도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와서 오전 내내 물건정리하면서도 항상 생기 있던 모습은 점차 사라져 가고 피곤해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집 장만에, 아이들 양육에, 우리 부부의 건강을 챙길 마음의 여유도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았다.

그럴 듯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다. 오늘따라 남편이 너무도 왜소하고 작아 보였다. 걸치고 있는 잠바 때문인 것 같아 속이 상했다. 거의 10년은 입었을 듯한 얇은 잠바가 남편을 초라하고 측은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았다.

저녁을 일찍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남편 혼자 가게를 보게 한 뒤 슬그머니 나와 버스를 타고 백화점에 갔다. 보기만 해도 넉넉해 보임직한 약간 두툼한 점퍼를 사들고 오는 내 발걸음이 가볍다. 이런 데 왜 돈을 쓰느냐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입어보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 '당신도 옷 변변히 없으면서 왜 내 옷을 사왔나'며 내 손을 꼭 잡아준다.

헌 점퍼는 이제 그만 입으라고 분리수거함에 갖다 버린다고 하니까 내년에 또 입을 수 있는데 왜 버리느냐고 한다. 하지만 난 과감하게 버렸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못한 그간의 미안함을 털어버리고 싶기라도 하듯이….

분당구 야탑3동 최현숙



새끼 낳은 우리 집 강아지

기르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아니 이제 새끼를 낳았으니,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팔순 어미의 눈에 육순의 아들도 아기로 보이니 여전히 내겐 강아지다.

야들야들, 바람 불면 꺼져버릴 촛불 같던 여린 생명을 받아 다 키운 탓에,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내 눈엔 그저 강아지일 뿐이다. 자기 앞 가름도 못할 것 같던 녀석이, 제 입으로 새끼들의 배설물을 일일이 핥아주고 주인이라도 제 새끼를 만질라치면 은근히 경계하느라 몸으로 막는 것이 우습고 신기하고 기특했다.

어려서부터 개를 좋아해 끊이지 않고 개를 키웠지만 개의 수명이 사람의 수명보다 훨씬 짧은 데다 지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가는 개보다 이래저래 사고와 병으로 곁을 떠나니 개를 키운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해서 이 녀석을 처음 받아들일 때도 많이 망설였었다.

그러나 나 아니면, 오갈 데 없을 녀석이라는 말을 듣고 데리고 왔지만, 마치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기계로 부화시킨 병아리처럼 여리고 약해 처음엔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며 속도 많이 태웠다.

그런 녀석이, 내가 잠시 방심한 틈에 놀러온 옆집 강아지와 사랑을 나눠 새끼까지 낳았으니, 어이없는 한편 대견하기도 했다. 지 에미처럼 새끼들이 꼼지락거리는 모습에, 어이없어 한 마음은 이내 봄 눈 녹듯 녹아버린다.

이젠 애완동물을 넘어, '반려동물'이라 부르는 애완견. 빛이 있음 그늘도 있듯, 무책임한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는 유기견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니 맘이 답답하다. 사랑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물이든 책임의 경중엔 차이가 없을 진데 점점 자기 편한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수정구 태평4동 신남숙



안전, 먼저 우리 스스로가…

가을이 찾아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며 주변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찾을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생활의 편안함에만 신경을 쓰지, 안전과 예방에는 소홀히 해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에서 근무하다보면 화재현장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큰 재난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얼마 전, 분당구 양지마을에서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가 있었다.

'내 일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땐 다른 층의 주민들은 화재가 난 사실조차 모르고 전혀 대피하지 않은 상태였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한 자가용 소유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가 아파트 이면도로에 주민들의 무단 주·정차가 늘어나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있다. 이로 인해 화재진압이 늦어져 무서운 화염을 분출하는 화재현장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연기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많이 춥고 길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우리 가정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시 주변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요령,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등 피난요령, 소화기 상태 등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항상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원활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외출 시 가스불 등 화재가 우려되는 가전제품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끊임없이 주변을 맴도는 각종 사건사고는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다가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을 해당 기관에서 해결해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가정 내 직장은 내 스스로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불안전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할 때이다. 안전한 삶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할 때다.

분당소방서 진압대장 허남길

생활수필은 >>> 200자 원고지 5매 이내(5매 초과시 게재 불가)
우 편: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2동 3309번지)
성남시청 공보담당관실 <비전성남> 편집실
E-mail: snvision@hanmail.net / snvision@cans21.net
매월 12일까지 접수 (주소 · 이름 · 연락처 기재)





흰 돌과 검은 돌로 나누는 삶의 대화 바둑

우정 · 道의 스포츠… 어린이에겐 창의력 · 계산력 길러줘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성남시 바둑의 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프로 기사 유창혁(9단), 나종훈(5단)도 눈에 띈다. 제3회 성남 시장배 시민바둑축제가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6일(일) 제2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열렸다.

흰 돌과 검은 돌의 땅따먹기처럼 보이는 바둑. "보통 인구의 10%를 바둑 인구로 보는데 성남시는 10만명 정도가 바둑 인구로 교육기관도 전국에서 제일 많다"며 성남시 바둑열기는 단연 전국 최고라고 성남시 바둑연합회 조두행(6단) 사무국장은 말한다.

바둑은 원래 천체를 관찰하던 도구로 별자리를 기록하던 기구로 사용하였던 유래가 있듯이 우주를 바둑판에 올려 두고 인간의 마음속, 삼라만상의 기류를 표시하는 것 같아 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다. 어른과 아이가 겨루어도 예의를 중시하는 바둑은 무기 없이 상대를 집으로 제압하며 인격을 쌓고 인내심을 기르는 '도(道)의 스포츠'라 부른다.

우정과 화합뿐 아니라 정신집중, 계산력, 창의력을 길러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여 많은 아이들이 바둑을 즐겨 찾는다. 컴퓨터 게임과 오락에 손놀림이 바쁜 아이들에 비해 분당 내정초등학교 장현식(5학년)군은 그 시간에 바둑을 두면 행복하다고 말한다. 벌써 바둑판에서 인생의 묘미를 깨달은 것일까.

옛날 할아버지께 배운 것이 계기가 되어 바둑에 입문한 이미정(66세)씨는 2002년부터 인근 교회에서 노인분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고 있다. "평소 바둑에 관심이 많았는데 무기력하게 노인정을 다니느니 바둑을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분당 여성기우회에 들어왔어요. 처음 몇 년은 나이가 많아 힘들었는데 좋아서 자꾸 하다보니 어느새 늘었어요." 바둑을 둘 때는 집중해서 두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에 최고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실력이 되는 한 열심히 봉사할 생각이라고 한다.

성남시 바둑연합회 여성연맹 홍난선(47세) 회장은 남편과 대국을 할 때 9점을 깔고 온갖 애교를 부려야 남편이 한번 더 두어 주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남편이 한판 더 두자고 사정할 정도로 기량이 쌓아졌다. 자칫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주부의 삶이지만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성취감을 찾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단다.

바둑에 입문한 지 거의 10년이 된 성남시 바둑연합회 여성기우회 회원들. 평균 4~5급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어 올해 전국대회 '서울 여성연맹배' 4위, '이창호배' 단체전 3위에 오를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며 바둑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스포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그 진가가 드러나듯이 바둑은 노인들과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자존심 건 한판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만인의 연인이다.

대국 후 서로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등 겸양의 인사를 건네는 바둑은 스케줄에 쫓기며 나만을 우선시 하는 현대인의 삶에 여유를 주는 매력의 스포츠 임에 틀림없다.

성남시 바둑연합회 781-8236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퓨전 생선회

알로에 참치 사시미

유 택용 서울보건대 조리예술과 교수

기존의 와사비를 찍어먹는 회에서 탈피하여 섬유소와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알로에를 곁들여 올리브유와 식초를 섞은 드레싱을 끼얹어 먹는 퓨전 생선회이다.

▶재료 및 분량

알로에……60g
메카참치……60g
토마토……1/2개
크림치즈……40g
참나물……20g
소금, 후추, 식초



▶만드는 법

(1) 알로에는 5㎝ 길이로 잘라 껍질 벗겨 슬라이스한다.
(2) 메카참치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씻고 3% 정도의 미지근한 소금물(짠맛이 날 정도)에 담가 해동한 다음 4㎜ 두께로 포 뜨듯이 썰어 준비한다.(1분 정도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져 물기를 제거하고 행주에 올려 자연 해동한다. 빨리 해동하고 싶으면 소금물에 더 오래 담가도 된다.)
(3) 토마토는 1㎝ 두께로 썰어 깍두기 모양으로 썬다.
(4) 참나물은 물에 깨끗이 씻어 다듬어 준비한다.
(5) 올리브유:식초(3:1)의 비율로 섞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하여 드레싱을 만든다.
(6) 썬 참치와 알로에를 접시에 펴고, 참나물과 크림치즈, 토마토를 곁들이고 드레싱을 뿌려 먹는다.(통후추가 있으면 즉석에서 그라인더에 갈아 참치에 뿌린다.)

CLICK 공연 · 전시

>>> 제11회 중원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일시 : 2005.11.29(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 지휘자 : 나윤규
· 프로그램 : 가곡 산유화 등 11곡
· 특별출연 : 성악가 최승원, 이덕인씨 등
중원구 사회경제과 문화체육팀 750-2312



>>> 제5회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일시 : 2005.12.10(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 단원 모집: 기타, 콘트라 베이스 약간 명.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분당 만돌린 오케스트라 016-9668-7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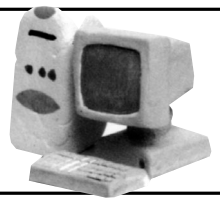


>>> 절망에서 희망으로 – 세바스티앙 살가도 Essays展

· 기간 : 2005. 11. 23(수)~2005. 12. 11(일)
·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 관람료 : 개인 2,000원, 단체 1,000원
· 참여작가 : 세바스티앙 살가도
· 내용 : 노동자, 기아, 난민 등 생존의 몸부림을 표현한 사진 173점 전시
성남문화재단 783-8091~4


침보라 조, 에콰도르, 1982

#11월 흑흑 2005.11.23 1:3 PM 페이지 2



정/보/나/눔

정보나눔은 공익성이 있는 알림 소식에 한하여 시민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12일까지 접수받으며 <비전성남>은 25일에 배부됩니다.

◆보내실곳: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2동 3309번지)
◆문 의 처: 편집위원회 편집실 ☎ 729-2714~5, FAX 729-5439
◆E-mail : ▶▷snvision@cans21.net ▶▷snvision@hanmail.net



♣모든 범죄는「112」로 신고합시다.

•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2006년 제40기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 모집인원: 22개반 555명
• 모집과목: 현대의상과, 고전의상과, 한식조리사자격증과, 생활요리과, 제과·제빵자격증과, 생활제과·제빵과, 미용사취업·창업과, 미용사자격증과, 도배자격증과, 퀼트.홈패션과, 피부미용과, 꽃집창업과, 한지공예과, 컴퓨터과,(초급A·B, 자격증·중급), 서예과, 수묵화과, 영어회화과, 일어회화과, 중국어회화과,
• 교육기간: 2006. 1. 9 ~ 2006. 6. 9(5개월과정)
• 모집대상: 만18세 이상성남시 거주여성
• 일반접수: 2005. 11. 25 ~ 2006. 1.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증명서 첨부)
• 선발방법: 선착순, 주민등록증, 수강료(50,000원)
☎성남시여성복지회관 745-3071~2
(수정구 단대동 70번지)

♣겨울철 수도계량기 관리 요령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물이 새고있는지 여부 및 보온재 확인
(보온재는 12월부터 수도행정과에서 무료지급)
• 특히 복도식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벽체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는 보호카바 부착
•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혹한 기간중 수돗물을 안 쓰는 야간에는 수돗물을 아주 소량을 흘려 동파예방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수도계량기 유리가 파열될 수있음.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에서 토치램프를 사용하면 계량기 연결부위의 고무패킹이 녹아 누수가 되고, 보호통 내의 스치로폼에 인화우려가 있으니 절대 사용 금지
☎수도계량기 동파신고전화
주간: 729-5141~2, 야간: 729-2222

♣2006학년도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 입학자격: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및 고등학교 중퇴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등
• 입학자격: 연령제한이 없으며 현재 재학생의 평균 연령은 40대
• 접수기간: 2006. 1. 5 ~ 2. 28
• 원서교부: 경기여자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02-573-6797(내선 216)

♣한림 주부 중·고등학교 학생 모집

• 중학교: 신입생 주·야간 464명(수업료 무료), 편입생 2·3학년 약간명
• 고등학교: 신입생 주·야간 464명, 편입생 2·3학년 약간 명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선착순 마감
• 교부접수: 2006. 2. 28(화)까지(휴일도 접수)
※중학교 2년, 고등학교 2년 졸업으로 검정고시 없이 대학진학 함.
☎한림 중·실업고등학교 02-430-7821
http://www.hanlim.hs.kr

♣수성방송통신고 남·여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 학력인정 학교, 출석공휴일 월 2회. 연령 제한없음
• 지원자격: 중학교졸업(예정)자 및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중퇴자
• 교부 및 접수: 2006. 1. ~ 3. 25
☎수성 방송통신고(수원) 259-1320~1

♣2006학년도 성은학교 신입생 모집 (공립 정신지체 특수교육기관)

• 대 상: 정신지체
• 모집부문: 유치부(만 3세~만 5세), 초등부(만 6세~만 12세), 중학부, 고등부
• 모집기간: 2005. 12. 21(수)까지
☎성은학교장 706-6983~4(http://sbse.sc.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172번지

♣여성부 위탁 보육교사(3급) 국가자격증안내

• 모집인원: 150명 (남녀)
• 교육기간: 2006.3~2007.2(월~금, 9시 30분~14시)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4주간 현장실습이 가능한 자(연령제한없음)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12월 1일부터 선착순마감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양식) 1부/반명함판사진 2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주민등록초본 1부
☎새세대육영회 보육교사교육원 02-2144-1070~5
http://www.yukyoung.or.kr

♣국내입양·미혼모 상담

•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신가요?
•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싶으신가요?
• 미혼모 무료숙식, 무료분만 가능, 입양상담
*모든상담내용 절대 비밀 보장
☎동방사회복지 성남아동상담소
747-5453/5036(24시 상담)
www.adoptlove.or.kr/e-mail:
sookgreen@hanmail.net

♣구미교회 희망의 전화 상담실

삶의 위기와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힘을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개설된 무료전화 상담실입니다.

• 상담내용: 일반상담 신앙상담 말벗 서비스
• 상담시간: 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분당구미교회 731-5479

♣2005년 분당제생병원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6개월 이상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분,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 적극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실 분

• 활동시간: 9시~12시, 1시~4시 중 택일, 월~금 중 택일.
• 모집분야: 중앙 안내 및 내원하는 외래객들에게 병동안내, 전화 응대, 처방전 안내, 내과안내, 도서봉사 등
• 모집기간: 수시모집
• 방문접수: 사회사업과로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접수
• 인터넷 접수: http://www.dmc.or.kr '자원봉사자 신청'
☎분당제생병원 사회사업과 779-0957~8

♣『성남신구대우체국』 폐국 안내

• 폐국일자: 2005. 12. 30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85 신구대학교 내)
☎성남우체국장 744-2800

♣어르신 초등 검정고시반 수강생 모집

• 대 상: 성남시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모집인원: 10명
• 접수기간: 2005. 12. 24(토)까지
☎수정노인복지회관 731-3393~4

♣수정노인복지회관 부설 재활전문치료센터

• 진료과목: 뇌졸중 클리닉(재활프로그램 병행)
• 진료시간: 월~금(오전 9시~오후 4시 30분)
토(12시까지)
☎재활전문치료센터(수정복지의원) 731-3435

♣교통안전 분담금 환급 안내

• 환급기간: 2002. 1. 1 ~ 2006. 12. 31까지
• 환급대상: 2002. 1. 1 이전에 소유한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운전면허 소지자: 최저 0원 ~ 최고 5,400원
자가용자동차소유자: 최저 400원 ~ 최고 19,200원
• 환급신청방법: 인터넷 bundam.rtsa.or.kr
ARS 1588-6117
우편접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4-5
우편번호: 441-79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지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경기지부 220-8103~7
Fax 222-0052
※전화, FAX,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으로 200원씩 감면 혜택

•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에 대하여 2005.8월부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200원씩 감면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사이버민원실→ 민원신청 → 자동이체 → 가입신청
• 전화신청: 성남남부지사 788-4114,
성남북부지사 729-0114

♣가스보일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배기가스가 새고있는가를 확인합니다.
• 환기가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 보일러 사용시 연소상태이상 및 운전상태를 확인합니다.
• 보일러 사용도중 두통, 현기증, 구토증상시 즉시 사용중지 후 도시가스회사의 점검을 받읍시다.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 720-7302~3

♣경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 신입생 (편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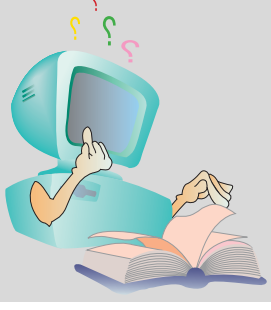
• 원서접수: 2006. 2. 1 - 2006. 2. 28
• 전형방법: 무시험 서류전형(학력인정 학교)
• 입학자격: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경동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02-929-4097, www.kdb.hs.kr, 02-928-0387

「비전성남」 명예기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 인원: 7명(여)
▶ 모집 기간: 2005. 11. 25~11. 30(수)까지
▶ 참여 하실 분: 언론사·사보·학보사의 취재 기자 또는 취재, 편집 경력이 있는 분, 시정 운영 및 「비전성남」에 관심이 있고 기사작성 능력이 있는 분
▶ 하시는 일
·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 취재, 훈훈한 미담사례 발굴, 지역의 각종 봉사 및 사회단체 탐방, 지역인사 인터뷰 등 생활정보 취재 및 기사작성
▶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자작 글(기명취재기사, 수필, 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비전성남」 편집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체국소인 30일까지 유효)
우편번호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2동 3309)
성남시청 공보담당관실(비전 성남 편집실)
▶ 기타사항: 상기 직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원고 제출 채택 시 1편당 5만원 상당의 원고료 지급
※「비전 성남」 편집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심의 확정한 후 개별 통지 하여 드립니다.(12월 말 예정)
▶ 문의: 성남시청 공보담당관실(편집실) 729-2714~5

◈ 겨울철 산불방지 기간 ◈
2005. 11. 1 ~12. 15(45일간)

비전성남 전자신문(PDF) 서비스



월간 <비전성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쇄 상태 그대로 생생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www.cans21.net → 시정소식 안내
※ 최측상단링크 페이지 아래 메뉴 클릭

2005. 11월호 기사제출자

▣ 기사제출자: 원고료 (30,000원 상당)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수정구 단대동	정경숙	중원구 상대원1동	박경옥
신흥동	김경의	상대원2동	박문숙
태평동	이순례	금광동	윤현자
태평4동	신남숙	분당구 이매동	정선화
양지동	유택용	금곡동	장영희
산성동	박혜정	야탑동	권의정
수진1동	한은홍	야탑3동	최현숙
		분당소방서	허남길

통·반장님! 비전성남 배부에 늘 감사드립니다.



가보고 싶은 우리시 공원 ③

희망대공원



농구장

팔각정



야외공연장



조깅로



조명타워

도심 속 싱그러운 쉼터… 야간조명 설치된 각종 레저 공간

겨울 문턱, 쌀쌀한 날씨에도불구하고 도시 중앙에서 싱그러움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수정구 신흥2동 466번지 일원, 구시가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12만194㎡(37,266평) 규모의 희망대공원. 삭막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쉬어 갈 싱그러운 녹지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다.

다목적광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다목적광장에는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어 일상생활 후 야간에도 여가증진을 위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분수시설, 계류시설, 야외공연장, 발지압장, 조깅로 등은 공원을 찾는 이들의 볼거리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공원운영과 운영1팀 729-5320
이순례 기자

공원에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5.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어우렁더우렁 나눔마당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건 모두 들고 나오세요!"

매주 일요일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앞 광장으로







시민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판매 교환하는 소박하고 자발적인 나눔장터 "어우렁더우렁 나눔마당"(일명 벼룩시장)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당구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앞 광장에서 열린다.

환경살리기 실천 중앙연합 주최로 2003년 3월 남한산성에서 시민나눔장터로 출발한 환경살리기 녹색나눔장터는 특히 올해엔 참여한 시민들이 판매물품 중 1개 물품을 기증하고 이웃과 만나 정을 나누며 내가 사는 우리지역 공동체 문화를 일구어 가는 장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나눔장터는 ▲생명의 마당(필요치 않은 물품을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하는 물물교환 마당) ▲어우렁 마당(청소년 및 시민, 친구, 가족단위로 함께 우리집의 잉여물품을 선보이며, 이웃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마당) ▲더우렁 마당(청소년과 시민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연 및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마당) ▲나눔의 마당(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환경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마당) 등 4개 마당으로 구분되어 있다.

윤재섭 기획팀장은 "어우렁더우렁 장터에는 상업적으로 판매하던 물품이나 상인들의 참여는 제한되지만, 물품교환 기증, 구입, 위탁판매 의뢰, 정보 제공, 센터운영, 의류수선, 기획 행사 자원봉사, 홍보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서 "장터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겐 녹색소비체험교육으로서 사회봉사 활동 시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어우렁더우렁'이 여러 사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양을 의미하는 것 같이 성남시민이 한데 어울려 함께 삶의 향기를 피워내는 나눔과 어울림의 장터. 이번 일요일엔 집에서 쓰던 생활용품 중 버리기는 아깝고 쓸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가 보자.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환경살리기 실천 중앙연합 사무국
721-6533/ 010-6288-2575/010-2782-6533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대 상: 시민, 청소년 (가족, 이웃, 동아리, 단체)
♥접 수: 전화접수(721-6533) 및 현장접수
♥참가비: 안 쓰는 물건 1개 기증
♥인터넷 접수: http://hwankyung.or.kr/(환경살리기.com)
http://cafe.daum.net/greenlifeblue
♥나눔참여: 수익금의 10%를 영장산 식재용 묘목기금으로 자율 기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준비물: 모자(햇볕차단용), 식수, 도시락, 돗자리(2m x 2m)
※ 돗자리는 반드시 정해진 크기로 사용